

프리메이슨 音樂(Freemason-music)에 관한 研究

曹 敦 任

(서울교대 조교수)

目	次
I. 序 論	1) 概 觀
II. 프리메이슨리의 概觀	2) '마적' (Die Zauberflöte)
III. 프리메이슨 音樂의 歷史	4. 프랑스의 프리메이슨 音樂
1.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프리메이슨 音樂	5. 기타 다른 작곡가에게 미친 메이슨의 영향
2.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프리메이슨 音樂	IV. 結 論
3. W.Mozart 의 프리메이슨 音樂	

I. 序 論

18세기 중엽부터 18세기 후기에 이르러 정치권력이 귀족계급으로부터 중산계급으로 옮겨짐에 따라 理性時代는 啓蒙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종교에서도 신앙을 초월하여 理性이 주장되고 人間性에 대한 새로운 信念이 적용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啓蒙主義에 호응하여 世界市民主義의인 意識과 함께 휴머니즘과 合理主義의 입장을 취하고 1717년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大로지 (grand lodge)가 설립된 후 영국 전역으로 다시 유럽 각국과 미국에 까지 퍼지게 되었다. 본래는 中世의 石工길드 (mason guild)를 母體로 하였으나 석공들만의 조합이 아닌 지식인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계몽전제군주들중에는 스스로 메이슨 團員이었거나 그 活動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련의 音樂家들도 영국에서 잉글랜드大로지가 설립되자 프리메이슨리에 가입하고 活動을 했다. 예컨대, 영국의 Ch. King, Boyce, Arne, S. Wesley 등과 오스트리아에서는 1740년 이후부터 전성기를 맞이하여 Wranitzky, Kozeluch, G. Benda, J. Haydn, W. A. Mozart 와 같은 역사적으로 유명

한 作曲家들이 프리메이슨이었다. 따라서 메이슨音樂은 역사적으로 프리메이슨이었거나 이에 관심을 가졌던 音樂家들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일반적으로 프리메이슨音樂은 프리메이슨리의 儀式과 社會的 活動에 관련되어 사용된 音樂을 뜻하며, 특히 Mozart의 오페라 ‘마적’이 메이슨音樂으로 잘 알려졌으며 그의 다른 많은 작품들도 이에 속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Mozart를 비롯하여 프리메이슨이었던 音樂家들을 중심으로 프리메이슨의 思想이나 象徵性을 표현한 作品을 考察하고 歷史的으로는 각 나라별로 영국을 비롯하여 비인古典派를 중심으로 발전한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의 메이슨音樂의 發達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프리메이슨리에 대한 概觀으로 그 起源과 象徵性, 儀式과 組織 및 思想에 대하여 고찰하여 메이슨音樂의 實體와 歷史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프리메이슨리의¹⁾ 概觀

주로 근대 유럽에서 활약하고 세계최대의 국제적 友愛秘密結社로 알려진 오늘날의 프리메이슨리의 歷史는 일반적으로 1717년 7월 24일²⁾ 기존해 있던 런던의 유명한 4개의 로지³⁾가 성파울교회의 광장에서 잉글랜드大로지(Grand lodge of England)를 설립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졌다. 中世의 石工組合(mason guild)을 母體로한 프리메이슨리는 그 入團式이 象徵의 神秘主義인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직업적인 石手制度에서 유래하여, 17세기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理念的 石工團員, 즉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어, 중세의 석공들의 상징주의에 의하여 올바른 人生의 德行을 가르치는 道德性을 위한 同團體의 目的에서 연유하고 있다.

프리메이슨⁴⁾은 寺院의 건축을 통하여 솔로몬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는 ‘人間性의

1. 프리메이슨리(Freemasonry, Freimaurerei, Franc maçonnerie)는 국내에서는 영어발음 그대로 ‘프리메이슨리’(정치학대사전, 박영사, 1980) 또는 ‘프리메이슨團’(기독교대백과사전, 기독교문사, 1985)으로, 영한사전에는 ‘비밀결사단’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2. 이 날은 st. John Baptist Day 였다.

3. 로지(Lodge, Loge)는 ‘석공들의 집회소’ 또는 ‘지부’를 뜻한다.

4. 프리메이슨(freemason, Freimauer, Franc-maçonique)는 ‘프리메이슨리의 團員’을 뜻하며 메이슨(mason, 석공)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寺院' (Tempel of Humanity)를 위하여 작업하므로 '궁정예술'(die Königliche Kunst)이라는 명칭을 갖기도 하였다.

현대 프리메이슨리의 用語와 儀式은 石手組合 (the craft of masons)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다른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神話를 가지고 있다 (Hiram은 솔로몬왕의 우두머리 건축가로 암호를 요구하는 3명의 살인자에 의하여 암살당하였다). Hiram 전설은 일찌기 다른 神秘思想과 더불어 전해 내려오는 데, 무엇보다도 東洋의 神秘를 통하여 그리고 17세기에는 황금십자단思想에 의하여 전해졌다: 그러한 연유로 로지의 비밀에 대한 침묵이 큰 의미를 갖는다. 그후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강력한 合理主義의 영향 즉, 우선적으로 박애와 자혜 그리고 민족화합의 理念으로 귀착되었다. 이와 같이 프리메이슨리는 18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그들의 면모는 그 당시의 정신적인 질풍에 따라 변화되었다. 그 최고봉의 발달은 18세기 프리메이슨리에서 볼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프리메이슨리는 이미 도덕성외에도 또한 강한 사회성을 띠고 있었다. 1717년 영국의 대로지가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실제로 활동하는 메이슨은 소수였으며 이들은 아마추어 (Gentlman), 우두머리 (Captain), 목수 (Carpenter)라는 3등급의 임원을 임명하고 이 로지임원들이 四季통신이라는 회의를 열어 연례총회와 축전을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명의 大家 (grand master, grossmeister)⁵⁾를 선출하기 위하여 上部에 귀족 한명을 명예단원으로 추대하였다. 1721년에는 Montagne 공작이 大家를 지냈으며 잉글랜드대로지의 단장이 되었다. 따라서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貴族이나 王族들이 끊이지 않고 단원이 되었으며 1913년에는 잉글랜드대로지의 大家를 H.R.H. Connaught 공작이 지내고 그후에 그는 Eduard VII왕이 되었다.⁶⁾ 그리하여 각국의 왕후를 비롯하여 정치, 학문, 예술 등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전 유럽에서 가입하였는데 대다수가 귀족중에서 소수가 정신적인 계층에서 보충되어 모집되었다. 특히 국가의 수뇌가 회원이었는데 예컨대, 프리드리히대제, 프리드리히 빌헬름三世, 바이마르의 칼 아우구스트대공, 프란츠I세 황제,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많은 대통령, 영국의 조지IV세 등을 들수 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요셉왕과 프리드리히왕시대의 개화기에 프리메이슨리의 위치가 최고봉에 올랐다. 철학자중에는 Fichte, Krause가 있으며 시인과 작가로는 Bürger, Chamisso, Claudius, Kleist

5. 로지의 단장의 등급명칭

6. James Hastings(ed.),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T.& T. Clark, 1981, Vol. VI, pp.118-120.

Klopstock, Wieland, Herder, Goethe 를 들 수 있는데 피테의 作品에는 프리메이슨리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제적 프리메이슨作品으로 G.E. Lessing 의 ‘에른스트와 팔크’ (Ernst und Falk) 는 궁정예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알려진 바이다.⁷⁾ 영국에서는 Pope, Sterne, Swift 와 같은 많은 독일 프리메이슨시인과 남성작가들이 활약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Beaumarchais, Stendhal 과 대부분의 百科全書派들이 會員이었다.

프리메이슨은 21세 이상의 成人으로서 自由人으로서 태어난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등급체계는 상징적으로 3등급으로 되었는데 제 1등급으로는 초보자격의 ‘徒弟’ (apprentice, Lehrling), 제 2등급이 徒弟의 수업을 마친 ‘匠色’ (fellow of the Craft, Captain, Geselle), 그리고 제 3등급으로 최고의 승진인 ‘大家’ (master mason, meister) 의 기본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 組織은 지역마다 집회소로서 지부를 두었는데 이를 로지 (Lodge, Loge)라 부르며 여러개의 로지가 모여서 하나의 管區의 성격을 띤 大로지 (grand lodge, grossloge)를 이룬다. 그리고 각 로지의 우두머리를 ‘可敬者’ (Venerable) 또는 ‘大家’ (meister)라고 하였으며 大로지의 長은 ‘大名匠’ (grand master)라 불렀다.

각 로지의 집회소에는 3가지 ‘위대한 빛’으로서 거룩한 법전 (성서)과 콤파스 그리고 직각자를 비치하였는데 비기독교인들은 성서대신에 코란 등의 다른 종교의 경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무신론자들만이 참여가 금지되었을 뿐 모든 프리메이슨은 兄弟이며 서로 받들고 도울 의무가 있다. 정규 프리메이슨리는 모든 종교와 교회를 존중하며 모든 합법적인 세속의 권위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따라서 超人種的, 超國家的, 超階級的 相愛主義와 平和的 人道主義를 그 基本精神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團體가 본래 政治性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普遍主義的, 코즈머폴리티니즘적인 것을 理念으로 할 때에는 專制的, 反動的 政論에 의하여 自由主義를 信奉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國粹主義者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본래 프리메이슨리가 秘密結社가 아니었으나 秘密結社化한 것은 일반적으로 첫째, 위와 같은 그들의 理念이 일정한 歷史的 情況에서 宗教的·政治的 迫害를 받았으며 둘째, 프리메이슨리의 起源과 그 발전하는 過程에서 神秘主義的 象徵主義로 특징짓는 閉鎖的인 團體가 되었으

7. Vgl.,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ärenreiter-Verlag, Kassel und Basel, Bd. IV, Artc. “Freimaurermusik”, p.887 ff.

(이 논문에서는 추후로 MGG로 약칭한다.)

며 셋째, 역사적으로 프리메이슨리가 私的인 詐欺行爲나 政治的 陰謀에 이용되었다는 측면에 기인한다고 본다.⁸⁾

1722년에는 잉글랜드대로지가 全 영국의 로지를 包括하도록 발전하였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대로지가 새로이 설립되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대륙 뿐만 아니라 미국에 까지 파급되었다. 그러나 19세기 西歐諸國이 國家的으로 相互對立하고 있던 時代에는 프리메이슨리의 世界的 活動은 코리머폴리터니즘이란 理念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障害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兩大陣營의 對立이 그 活動에 反映되면서 난관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現代의 政治的·社會的 情況에서는 그 實效性 있는 活動에는 限界가 있으며, 그 歷史的인 役割은 市民社會의 完成과 더불어 끝났다고 볼 수 있다.⁹⁾

프리메이슨리는 소련과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의 나라에서는 금지되었다.¹⁰⁾

III. 프리메이슨 音樂¹¹⁾의 歷史

예배의식을 위한 음악과 더불어 18세기에는 특히 사교적인 민속노래가 유행하였는데 대개는 흔히 잘 알려진 멜로디에 새로운 歌詞를 붙여서 불려졌다. 영국의 캐취(Catches)와 글리(Glees), 프랑스의 샹송(Chansons)과 보드빌(Vauderilles), 독일에서 J.S. Speronte의 프리메이슨歌曲(Freimaurerlied) '플라이셰에서 노

8. 정치학대사전(박영사, 서울, 1980), p. 1685 참조.

9. 養珉, 위의 책, '프리메이슨리' 항목 참조.

10. Philip W. Goetz (Editor in Chief), Britannica,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768¹⁵, Vol. 4, p. 966.

11. 프리메이슨 音樂(masonic music; Freimaurermusik, franc-maçonique music)에 대한 本稿는 주로 MGG(註7참조)와 Cecil Hill, 'Masonic music' in: Stanley Sadie(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추후로 GDMM으로 약칭한다), Macmillian publishers limited., London, 1980, Vol. 11, Artc. "masonic music", pp. 753-756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래하는 뮤즈' (Die singende Muse an der Pleisse, 1736) 등이 그 예이다.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에는 人文主義精神이 프리메이슨리 制度圈 밖에서도 확산되었다. 1717년 런던에서 大로지가 설립되면서 유럽 각국으로 퍼지게 된 근대의 프리메이슨리는 세계시민주의적, 자유주의적 우애조직으로서 그들의 모임에서 聖書를 사용한 儀式을 중요시하였으므로 音樂이 처음부터 프리메이슨 조합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儀式에서 노래한 音樂과 프리메이슨리 內部로 로지의 社會活動과 연관되어 사용된 음악을 말한다.

프리메이슨리의 儀禮用音樂(Ritual music)은 언제나 로지의 활동이 결정된 후에 행하는 '和合의식'(Harmony)이나 소위말하는 '백색성찬(White table; Weissen Tafel)'에서 또는 로지의 활동중에서 프리메이슨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또한 장식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찬송가(Hymn)는 기도하는 사람의 부원이었으며 결코 프리메이슨儀式에서 정규부분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감탄의 일환으로 노래 불렀으며 그중의 다수가 비국교도(nonconformist) 교회에서 불리어졌다. 성앤드리왕립문 봉헌헌장(St. Adree Royal Arch Capter, 1821년)에서 프리메이슨리의 로지의 音樂使用에 대한 전형적인 언급을 볼 수 있다.

‘이 儀式동안에 여러 곡의 찬송가와 한 곡의 가곡이 불리어졌다.’

로지의 의사록에 수록되어 있는 몇개의 기록과 악기연주자 고용에 대한 회계장부를 보면 로지음악은 보통 무반주창으로 한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여러 로지에서 오르간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1818년 바야드로지(Bath lodge)에 설치된 것은 훌륭한 악기로 보존되어 있다. Northcott¹²⁾에 의하면 많은 로지들이 그들의 임원중에 오르가니스트를 1명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오르간이 부족했으므로 오르가니스트들의 위치는 고정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이슨로지에서 사용된 음악들은 새로 작곡된 운율적인 찬송가 뿐만 아니라 다수가 비메이슨적인 자료¹³⁾에서 편곡된 유절형 노래로 되어 있다. 프리메이슨리를 위한 音樂은 음악양식적으로 볼 때 歌曲類가 가장 많고 그외에 장송곡, 칸타타, 오페라, 행진곡 등 주로 성악이다. 일반적으로 歌詞는 프리메이슨에 의하여 일정한 用度에 따라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歌詞集중 다수가 18세기와 19세기 초기에 출판되었다. 출판된 메이슨성가집에 의하면 많은 歌詞가 특정한 일반찬송가에서 차용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영국과 스코트랜드에서 메이슨歌詞의 일반적인 운율은 6:6:4:6 또는

12. cf., GDMM, Vol.11, p. 754.

13. 예컨대, 거리의 노래(Street song), 대중오페라, 춤곡, 기독교찬송가 등등.

6 : 6 : 4였으며 가장 잘 알려진 운율로서는 출판된 찬송가 ‘神이여 우리들의 위대한 조지왕을 구하소서’ (God save great George our king)와 Felice de giardini의 ‘모스워우’ (Moswow)가 위의 운율로 되어 있다. 대중적인 유행가 부류의 유사한 改詞曲들은 유럽 대륙에서 유행되었는데 18세기 동안 대륙에서 최초로 알려진 메이슨노래는 앞에서 언급한 Speronte의 ‘플라이쉴에서 노래하는 뮤즈’로서 이곡은 거리의 노래 모음집으로 ‘우리들의 결사’ (our order)에 대한 歌詞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후에 명백하게 메이슨노래 모음집으로 출판되었다.

1.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프리메이슨 音樂¹⁴⁾

영국에서는 잉글랜드大로지가 설립된 후 1725년에 이미 音樂協會가 창설되었으며 1727년에 ‘아폴로 건축·철학·음악·건축협회 (Philo-Musicae et architecturae Societas Apollinis)’가 설립되었는데 이協會의 규약에는 오직 프리메이슨만을 손님으로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 협회의 최고책임자는 William gulston이 협회의장으로 그리고 ‘F.X. 제미니아형제 총음악연주지휘자겸 악장’ (Dictator and Director of all Performances Brother Francesco Xaverio Geminiani)으로 일했다. 이 협회는 본래 음악협회로서 홀리스거리의 ‘女王의 머리’ (At the Queen’s Head) 로지와 연합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협회가 다른 음악협회와 비슷한 목적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런던의 大로지와 충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會員을 영입했기 때문이다. 대영박물관에 보존되어있는 이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이때부터 음악가들이 프리메이슨리의 목적에 부합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 협회의 음악적인 목적은 당대의 유명한 바이올린주자이자 작곡가로서도 유명했던 Geminiani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퇴색되었다.

일찌기 유명한 音樂家들이 프리메이슨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1725년 ‘王의 팔’ (King’s Arms) 로지의 지부장이었으며 성파울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던 Charles king과 John Immyns가 이 로지의 團員이었는데 Immyns는 런던판사협회로부터 제명된 후 작곡가 Pepusch의 조수 (Amanuensis)가 되었으며 1741년에

14. 국가별 프리메이슨音樂에 대한 내용은 Roger Cott가 서술한 ‘Freimauremusik’ 항목 (in: MGG, Vgl. Fußnote 7)을 위주로 하였다.

‘마드리갈협회’(Madrigal Society)를 설립하였다. 그 외에 프리메이슨이었던 음악가는 울림쇠(音叉, Tonefork)의 발명가이며 뉴게이트가의 ‘그라이핀’(griffin)로지의 團員이었던 John Shore와 ‘스킵주막’(Skip-Tavern)로지의 團員이었던 Moris gree, 그리고 그의 후임자로서 죠지III세왕의 ‘싸전트-트럼펫주자’였던 Valentine Snow가 1731년에 ‘무지개커피-주막’로지에 가입하고 있었다. Handel은 ‘메시아’의 ‘Judas Maccabaus’ 그리고 다른 오라토리오에서 V. Snow를 위하여 트럼펫오블리가토를 작곡하였다. Boyce도 또한 우수한 프리메이슨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불려지고 있는 프리메이슨가곡 ‘세계의 그 어떤 종파도 메이슨과 비교할 수 없다’(No sect in the World can with Masons compare)를 썼다. Arne도 이로지에 속했는데 여기에는 Samuel Wesley, William Hayes, John Stafford Smith, Samuel Arnold, Mozart의 제자 Thomas Attwood, Samuel Webbe(몇개의 프리메이슨승창곡을 작곡했다). Benjamin Cook 등이 가입하였다. Beethoven의 승배자로 알려진 George Smart는 대로지의 제2인자였다. Michael Costa 경은 왕립극장의 감독이었으며 ‘이탈리아오페라와 교향악협회’의 감독을 지냈는데 그도 대로지의 제2인자로 활약했으며 나중에 이자리는 Charles Eduard Horsley(‘The Masonic Trinity’가곡의 작곡자)가 이어받았다. 18세기의 영국의 프리메이슨가곡중에서 Mathew Birkhead의 ‘入團하는 徒弟의 노래’(The Entered Appentice’s Song)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1763년에 Thomas Hale은 그의 ‘사회화음’(Social Harmony)를 출판하였는데 대부분이 프리메이슨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같은 단원이었던 William Hayes 박사의 ‘프리메이슨리의 송가’(Ode to Freemasonry)가 수록되었다. 그와 비슷한 성악곡으로는 ‘아폴로 하모니’(Apollonian Harmony)가 있으며 이것은 진귀하고 유명한 글리(glee), 캐취(Catche), 마드리갈(Madrigal), 칸초네트(Conzonett), 라운드(Round), 캐논(Canon)등을 모은 모음집이며 또한 유명한 연극배우이자 작곡가였던 Charles Dibdin(1745~1840)의 ‘프리메이슨의 글리’(The Free Mason’s glee)가 수록되었다. 그외의 많은 독창곡들이 보통 사회적인 연합(동포애와 프리메이슨의 성절)의 필요에 따라 불려졌다. Swallet Holden이 ‘메이슨노래선집’(A Selection of Masonic Song’s (1795년 또는 1796년)을 다블린에서 글리와 이중창곡, 독창곡 그리고 캐논을 모아 로지와 프리메이슨리의 협회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판하였다. 영국의 사회생활에서 프리메이슨리가 차지하는 커다란 의미는 1730년에 일종의 프리메이슨오페라(Ballad-opera)로 작곡되어 연주되었던 ‘관대한 프리메이슨’(The generous Freemasons)을 보고 잘 알 수

있다. 이곡은 1722년부터 Souffleur am Drury Lane 극장에서 일했던 Refus William Chetwood가 작곡했으며 1731년 워윅크거리의 G. Roberts가 출판하였는데 영국의 모든 프리메이슨 자격소유자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 오페라의 이야기 줄거리는 감상적인 海外諸國求助에 대한 내용으로 18세기 영국에서 널리 애호되었다. 특히 Henry Carey가 작곡한 넵툰발레(Neptun-Ballett)중의 '넵툰의 송가'(Neptuns-Ode)가 유명하다. 이 시대의 노래책들은 통주저음가곡(Generalbass-Lieder)를 수록하였는데 1766년 덴하크에서 출판된 'La lire maconne ou recueil de Chansons'이 이러한 종류이다. 歌詞는 일부는 프랑스어, 일부는 네덜란드어이다. 作曲家는 Vignoles와 du Bois 형제가 있다. 선율은 대부분 프랑스의 보드빌에서 따온 것이며, 그밖에 新作(Nonvelles Compositions)으로 표시된 원본노래도 들어있다. 그중 몇곡의 노래가 Ignatz Vitztum에 의해 작곡된 것이다. 그리고 이들 노래들이 대부분 영국의 프리메이슨 音樂과 같이 민속적인 선율과 춤곡 예컨대, 매뉴엘, 가보트, 부레 등이고 일부는 가센하우어(Gassenhauer)나 코믹오페라 중에서 잘 알려진 선율을 응용하였으며 그중의 몇곡은 Rousseau의 'Devin du Village'에 들어있는 것이다. 또한 프리메이슨노래 'L'homme toujours sagite pour trouver le bonheur'는 'Dans ma Cabane obscure'의 아리아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Que l'orde qui nous enchainne'는 'Ton humeur Cath'érine'의 선율을 노래하는데 이곡은 Lully의 '아르미드'의 개사곡중 이탈리아 코메디디안이 사용한 가센하우어이다. 'Chantons le bonhear de Maçons'가곡은 유명한 가센하우어 'Joconde'에 따라 노래하며 다시 'Arlequin Atys'에서 개사곡 아리아로 나온다. 프리메이슨노래 'Fondement de L'Art'는 가센하우어 'Revenant de Lorette'의 선율을 노래하며 Bacchus의 '아르미드'의 개사곡에서 'Tavoix s'est fait entendre dans la Bachque Cour'의 가사로 부른다. 그러나 보드빌 아리아 뿐만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곡들도 응용되었다. 영국노래들로는 '神이여 우리의 왕 위대한 조지를 구하소서'의 곡에다 'O lasterziek gemeen Veracht vry builen reen'가사를 붙인 가곡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독창곡중에서 독일의 가센하우어를 응용한 가곡의 예는 'De Vergenoeging'이 'Schoon dat ik onder't groen'의 선율을 노래하며 J.S.Bach가 그선율을 '플라이쉴에서 노래하는 뮤즈'중의 '너희 선인들이여 '들으라'(Ihr Schönen horet an)에 불렀다고 알려졌다.¹⁵⁾

15. Vgl. Wolfgang Schmieder, BWV, Anhang 40.

미국에서도 이와같이 일련의 프리메이슨가곡집이 출판되었는데 그중에는 다만 ‘메이슨 민스트렐’ (The Masonick Minstrel)¹⁶⁾ 이 남아있다. 이 책에는 로지와 로지의 사회적인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유래를 가진 노래들이 수록되었으며 ‘주여 왕을 구해주소서’ (god save the king)이 로지의 설립을 위한 글리(Hale Masonry Divine)로서 불리어졌다.

2.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프리메이슨 음악

독일에서 전해오는 최초의 프리메이슨가곡(Freimaurelied)는 Speronte의 ‘플라이세에서 노래하는 뮤즈’(1736)이다. 이 노래에서 ‘우리의 결사’와 ‘암호’동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악곡중에는 프리메이슨 중창 ‘연추와 콤파스’(Lot und Zirkel)이 들어있다. 1746년 詩人 Ludwig Friedrich Lenz(1717-1780)가 ‘프리메이슨들의 가곡’(Freymäurer-Lieder, 1745년으로 기록됨)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노래의 작곡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어느정도 독일의 프리메이슨音樂이 프랑스에 의존하였는가는 1771년 출판된 ‘선율을 붙인 프리메이슨들의 가곡’(Freymäurer-Lieder mit Molodien)을 보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3곡 중에서 4곡이 프랑스의 ‘Chansons notées de la très vénérable Confrérie de maçons liebre’에서 유래하며 다른 대부분의 곡들은 1746년 독창곡과 J.A. Scheibe의 독창곡들로 되어있다. 위의 사실은 열성적인 프리메이슨 1명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1749년 그는 이미 베를린의 에크에서 ‘편한 선율을 붙인 새로운 프리메이슨들의 가곡’(Neue Freymäurer-Lieder mit bequemen Melodien)을 발간했으며 이것을 그가 단원으로 있던 코펜하겐의 ‘짜로바벨’(Zarobabel)로지에 헌정하였다. 이 독창곡들은 프리메이슨리의 년호에 따라 5749 요한의 날(Johannistage)으로 기록되었다. 이 노래책은 오랫동안 아주 중요한 프리메이슨 노래집으로 인정받았다. 이 노래집에서는 프리메이슨리의 응답식의 의식에 알맞는 쏘창(Wechselgesang)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Scheibe는 1776년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1권의 새로운 프리메이슨-가곡집

16. A selection of masonick sentimental and humorous songs, duets, glees, Cannons, rounds and Canzonets, Dedham, H, Mann & Co. (1816).

을 출판하였는데 이 가곡집의 제 2권은 코펜하겐에서 Proft 가 1785년에 출간하였다. 그후 1788년 코펜하겐에서 ‘프리메이슨가곡집’ (Freymäurer - Lieder mit ganz neuen Melodien von den Herren Cappellmeistern (Ph. E.) Bach, Naumann und Schulz)이 출판되었다. 이 독창곡집은 序文에서는 노래의 선율과 가사를 따온 13권의 프리메이슨가곡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Christian Gottlob Neete도 역시 프리메이슨이었던 것 같다(Wolfstieg 와 Leux의 반대견해도 있다). 1774년 ‘프리메이슨가곡집’ (Freimäurer Lieder zum Gebrauche der germanischen und vollkümlichen Loge zum drey Hammern in Naumberg a. S.)가 Ernst Johann Georg S(chmidt?)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F. Gotthilf F.에 의하여 라이프찌히 브라트코프(Breitkopf) 출판사에서 1774년에 출판되었다. 새로운 프리메이슨리 연구에 의하면 Neefe는 ‘세마리 공작을 위한 카롤리네’(Karoline zu den drei Pfauen) 로지의 단원이었으며 1784년 Glaucus라는 이름으로 ‘본계발위원회’(Bonner Illuminaten)¹⁷⁾의 교회합창대의 부지휘자였다고 한다. Beethoven의 프리메이슨리에 대한 관심은 그의 선생님께서서 연유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Feen에서 Neefe라는 이름으로의 改名의 ‘프리메이슨’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의미한다. 라이프찌히는 序文에서 프리메이슨用語로 ‘Philadelphia’라고 써어있다. 6곡의 가곡은 會合 즉, 비밀결사회합에서 불려졌다. Neefe의 독창곡집이 출간되고 4년 후에 베를린의 보크(Bock) 출판사에서 프리메이슨가곡집 (Freimäurer lieder mit Melodien zum Gebrauch der von der grossen Landes-Loge der Freimaurer in Deutschland constituierten Loge)¹⁸⁾이 출판되었다. 이 독창곡집의 후편이 나왔는데 Friedlaender에 의하면 C.F. Telonius가 발행인이라고 한다. 유명한 프리메이슨 音樂家에는 Johann Gottlieb Naumann(1741-1801)이 있다. 그는 드레스덴에서 귀족신분을 으시대면서 배타적이었던 ‘황금사과’ 로지에 입단하고 그 로지의 비호아래 1782년 출판된 ‘메이슨을 위한 노래들’(Gesänge für Maurer)를 내놓았다. 이 곡집에는 36곡의 가곡이 드레스덴의 음악가들중에서 작곡가 Weinling, Seydelmann, Naumann, Schuster, Homelius 그리고 드레스덴 사람이 아닌 작곡가로는 Tag의 곡들이 수록되었다. 이책의 서문에서 이러한 가곡의 모음을 ‘고뇌하는 人間의 욕구’를 위하여 정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선율들은 아직 한번도 인쇄된적이 없으며 작곡가들중 일부가 프리메이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노래들의 장중한

17. 기성종교반대의 계명결사부(독일 1776년).

18. 직역하면 ‘독일 프리메이슨리의 대로지에 의하여 설립된 비밀결사단의 사용을 위해 곡을 붙인 프리메이슨가곡’이다.

양식은 이미 Mozart의 ‘박애양식’(Humanitäts-Stil)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곡가 자신이 프리메이슨이면서 노래를 작곡할 때에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래서 Schuster의 ‘匠色の 가곡’(Gesellenlied)은 그의 徒弟入國의 분위기를 강한 8분음부-유니슨에 의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Weinling의 ‘메이슨의 결정’(Die Bestimmung des Maurers)와 Tag의 ‘大家의 가곡’(Meisterlied) ‘얼마동안 먼지로부터 헤어날 수 있다면’(Wenn einst vom staube losgerissen)이다. Naumann은 그의 이름으로 1782년 제3등급의 진실된 분위기에 알맞는 ‘프리메이슨가곡 40곡집’(Vierzig Freimäurerlieder)을 출판하면서 이책을 ‘독일과 프랑스의 비밀결사단회합에 사용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이독창곡들이 프로이센의 Friedrig Wilhelm 왕자에게 헌정된 사실은 크게 시사하는 바가 없다.

1780년 J.F. Reichardt는 프리메이슨들의 가곡집의 증보판으로서 ‘독일의 자유메이슨과 입단한 프리메이슨을 위한 독창곡’(Zur Sologesang für frey und angenommene Maurer in Deutschland)를 출판했다. Naumann은 그의 프리메이슨가곡집(178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페라 ‘오지리스’(Osiris)를 작곡하였는데 이작품에서 그는 ‘프리메이슨大樣式을 인정함을 고백하는 작품으로 공연하려 노력했다’고 한 영국인이 밝히고 있다. 오페라의 대본이 프리메이슨神祕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10년 후에 작곡된 Mozart의 ‘마적’의 건본으로서 모범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Naumann의 오페라 ‘다 폰테’(Da Ponte) 작곡을 위하여 대본가 C. Mazzola가 작업을 서두르고 그의 독자적인 표현으로 연극적인 작업을 도모하고 있을 때 ‘돈쵸반니’의 대본가 또한 오페라 ‘오지리스’의 초안작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면 Mozart나 Schikaneder가 오페라 ‘다 폰테’를 통하여 또는 Mozart가 대본가 Mazzola¹⁹⁾를 통하여 스스로 이오페라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오지리스’는 ‘마적’의 건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메이슨을 시험하는 儀式을 의미하는 動機와 善惡의 源理를 대조시키는 병행동기 그리고 ‘사제의 합창’과 같은 여러 관점에서도 그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프리메이슨音樂에서 리듬상의 유도동기(Leitmotiv)는 ‘두드리는 리듬’(Klopf-rhythmen)²⁰⁾이 기본이다.

19. Mazzola는 그후에 Mozart를 위하여 Metastasio가 쓴 오페라 ‘티투스’의 대본을 개작하였으며, 이 작품은 1791년 프라하에서 왕관수여식에서 연주되었다.

20. 石手들이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의 표현과 상징.

오스트리아에서 프리메이슨리는 1742년부터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요셉 II세가 프리메이슨리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友好的인 協組者였다.²¹⁾

18세기의 音樂家중에서 프리메이슨리에 입단하였던 사람은 Carole d'Ordoriez, Franz Zöhrer, Paul Wranitzky 가 '최고의 희망' (Zur gekrönten Hoffnung) 로지에 속했으며 Joseph Bartha, Vitterio Colombazzo, Valentin Adamberger, Ferdinand Schleiss, Leopold Kozeluch 가 '종려나무' (Zum Palmbaum) 로지의 단원이었다. Kozeluch 는 그후에 '3 마리 독수리' (Zu den Drei Adlern) 로지에서 활약했다. 그리고 Johann Holzer 가 '참된 화합' (Zur wahren Eintracht) 로지에서 활동하면서 '프리메이슨지' (Journal für Freimaurer)에 2곡을 발표하였으며 그중에 둘째곡이 Ratschky 의 '匠色の 여행' (Gesellenreise)에 곡을 붙였다. 그후 Mozart 도 이곡을 작곡하였다. 행진곡으로 표시된 Holzer 의 '匠色の 여행'은 匠色の 樣式에 알맞지만 徒弟의 儀式에 속하는 리듬을 사용하였다. 요셉 II세 시대의 프리메이슨 音樂에 관한 것으로는 '최고의 희망' 로지를 중심으로 1784년 4월에 비인에서 연주된 것이 있다. 무언극 '아도니람의 죽음' (Adoniram's Tod)는 예술가기사회회 (Kunststreitergesellschaft)에 의하여 상연되고 Hyam이라는 이름의 단원작곡가에 의하여 작곡되고 또 지휘되었다. 비인에서 프리메이슨가곡 독창곡들로는 '비인 참된 화합로지에 사용하기 위한 가곡' (Lieder zum Gebrauch der Freimaurerloge 'Zur wahren Eintracht') 이 Bauernjöpeli라는 '지속' 로지의 단원이었던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 이독창곡중에는 Blumaure 의 가사에 Sarti 가 곡을 붙인 가곡이 1곡있는데 프리메이슨리에 속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밖에 비인 프리메이슨 축제를 위한 가곡이 '옛城' (Altenburger) 로지의 Georg Benda 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프라하에서는 '3개의 최고의 기둥' (Zu den drei gekrönten Säulen) 로지의 音樂家 Franz Xaver Hloschek 과 그의 아들 Anton 이 비인과 프라하 음예술연감 (Jahrbuch der Tonkunst von Wien und Prag)에 1796년 Loschek 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J. Haydn 도 이로지에 가입했었다. 그는 1785년 2월 11일 '진실' (Zur Wahrheit) 로지의 전임위원으로서 '참된 화합' 로지에 입단하였으나 오로지 한번만 그로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가 에스테르하치의 Apponyi (1785. 2. 2) 공작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제야 나는 나의 장래의 대부이신 von Webern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의 入團을 위하여 지난 금요일에 사람들이 나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합

21. 고위관직자들이 그를 프리메이슨리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였다.

니다. 그러나 초청장을 제때에 받지 못하여 다음 금요일로 부득이 연기하였읍니다. 오, 오늘이 벌써 금요일! 그와 같은 모임에서 훌륭한 남성들과 함께하는말 할 수 없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Haydn 이 입단할 때에 Joseph von Halzmeister 가 인사말을 한것이 ‘프리메이슨지’ (1784)에 수록되었다.

3. W. Mozart 의 프리메이슨 音樂

1) 概 觀

Mozart 는 啓蒙期의 오스트리아에서 그 時代의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프리메이슨리의 思想에 대단히 매력을 느낀 것 같다. 그는 이미 幼年시절에 프리메이슨리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Koch 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Leopold Mozart 와 Wolfgang Mozart 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보호’ (Zur Fürsicht) 로지를 방문했던 단원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Leopold Mozart 는 그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1785.10.14) 에서 ‘기성종교반대 啓明結社’ (Illuminaten Orden, 독일 1776) 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하여 Mozart 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던 많은 남성들이 ‘아폴로’ (Apollo) 와 ‘학문’ (Wissenschaft) 일루미나텐 오르덴 - 로지의 團員이었다. Mozart 의 ‘德行’ (Zur Wohltätigkeit) 로지의 入團은 비인에서 1784 년 12 월 14 일에 실행되었다. 아마도 1778 년 만하임에서 Mozart 의 후원자였으며 1782 년 비인으로 이주해온 이로지의 의전장 (Meister vom Stuhl) Otto Freiherr von Gemmingen 이 그를 이 로지로 인도한 것 같다. Mozart 는 1773 년 gebler 의 메이슨연극 ‘이집트왕 타모스’ (Thamos, König in Ägypten) 을 작곡하고 1778 년 Otto Freiherr von Gemmingen 의 펠로드라마 메이슨대본의 작곡을 구상하였다. 그러 현재 그의 음악은 분실되고 없다. 프리메이슨리의 무대를 통한 Mozart 의 진보는 매우 빨랐다. ‘참된 화합’ 로지의 기록 (비인, 국가연감) 에 의하면 Mozart 가 계속해서 로지에 나왔으며 1785 년 6 월 7 일에 제 2 급 (Geselle) 에 승진했으며 다른 여러 작곡가들도 로지를 방문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해 4 월 6 일 Leopold Mozart 도 제 2 급을 그리고 다시 4 월 22 일에 제 3 급 (Meister) 을

수여받았다.²²⁾ Leopold 는 아마도 Wolfgang 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프리메이슨리의 입단을 설득당한 것 같다. 추측컨대 Leopold 와 Wolfgang 사이의 서신 왕래는 프리메이슨리가 일역을 했을 것인데 아마 편지들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Wolfgang 의 프리메이슨리에서의 공헌은 그의 로지내부에서의 활기찬 音樂活動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예컨대, 그는 로지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클라리넷연주자 Anton Stadler 와 1787년 10월 20일 저녁 7시 30분²³⁾에 음악회를 열고 거기서 Stadler 가 피아노를 Mozart 는 자유로이 환타지를 연주하였다.²⁴⁾ 이음악회에서는 특별히 메이슨작품²⁵⁾ 뿐만 아니라 비메이슨작품으로 바셋트혼과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이 각각 1곡씩 연주되었다. '최고의 희망' 로지가 낸 서면초청장에 의하면 적어도 P. Wranitzky 의 교향곡 2곡이 프리이슨리를 위하여 작곡되었으며 Mozart 의 칸타타 '메이슨의 기쁨'²⁶⁾ 바셋트 혼을 위한 협주곡 1곡, 피아노 협주곡 1곡, A. Stadler 의 6개의 관악기를 위한 악곡이 연주되었는데 Mozart 가 처음으로 자유로운 환상곡 연주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Mozart 는 이와같은 演奏活動 이외에도 비인로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몇개의 작품을 작곡하였는데 특히 단원이었던 첫 두해 동안에 하였다.

비인 프리메이슨리의 각 로지들은 요셉II세에 의하여 통합이 포고되어 '참된 화합', '종려나무', '세마리 독수리' 로지가 새로이 '진실'(Zur Wahrheit) 로지로 통합하였으며 '최고의 희망', '덕행', '三火' 로지가 '新 최고의 희망'(Neugekrönte Hoffnung) 로지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프리메이슨리의 새로운 설립에 대한 Mozart 의 노래에는 '융합하라 오늘, 친애하는 형제들이여'(Zerfliesset heut', geliebte Brüder, Kv 483)가 있으며 이 노래의 歌詞는 완전히 프리메이슨리의 統合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Mozart 는 그밖에도 칸타타 '천지만물의 영혼,너에게'(Dir, Seels des Weltalle, KV 429/468a)를 비단원들이 초대된 메이슨축제를 위하여

22. Cecil Hill(cf. GDMM, vol, p.754)은 'W. Mozart 가 1785년 4월에 제3급에 이르렀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Paul Nettl(Vgl. MGG, Bd.4, p.894)의 위의 본문의 주장과 다르다. 이는 Mozart가 1785년 4월 22일에 제3급에 진급한 사실의 오인일 것이다.

23. cf., P. Nettl, Mozart und die königliche Kunst(Berlin, 1932).

24. 이 음악회는 '세마리 독수리' 로지와 '종려나무' 로지의 자매부지로 화합하는 초대에 응하여 개최된 것이다.

25. 찬송가와 Mozart 의 칸타타 '메이슨의 기쁨'(KV 471)과 프리메이슨이었던 Paul Wranitzky 의 교향곡 2곡.

26. GDMM(Vol, 11, p.754)에서 'Die Mauerfreude'의 표기는 'Die Maurerfreude'의 잘못된 것이기 바로 잡는다.

작곡했던 것으로 간주되며 가곡 ‘로지의 종말’ (Zum Schluss der Loge, KV 484) 과 ‘匠色의 여행’²⁷⁾ (Gesellenreise, KV 468) 을 아마도 그의 父親 (Leopold) 의 요구에 따라 작곡한 것으로 본다. ‘匠色의 여행’은 Mozart 가 Franz Joseph von Ratschky 가 1785년 3월 26일에 쓴 가사에 곡을 붙인 것으로 Mozart가 로지를 위하여 작곡한 첫번째 프리메이슨가곡이며 로지의 제 2급으로 입단하는 새로운 匠色을 환영하는 뜻에서 작곡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분실되고 없는 2개 작품은 아마도 1786년에 나온 것으로 짐작되는 ‘新최고의 희망’ 로지를 위한 ‘大로지의 創立’ (Zur Eröffnung der Meisterloge) 과 Gottlieb Leon 의 歌詞에 곡을 붙인 ‘大家수업의 끝’ (Zum Schluss der Meisterarbeit) 가 있다. ‘죽음의 작품’ (Des Todes Werk) 와 ‘大家의 작업이 완성되었다’ (Vollbracht ist die Arbeit der Meister) 는 Leopold 의 大家진급 (Meisterhebung) 을 위하여 작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785년 4월 20일 ‘匠色의 여행’에 이어서 ‘메이슨의 기쁨’이 ‘참된 화합’ 로지의 團長 Ignatz von Born 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최고의 희망’ 로지에서 연주되었다. 이 연주회는 그당시 오스트리아의 大로지의 비서관이었으며 비인에서 도덕적·지성적인 면에서 지도적인 人物이었으며 열성적인 프리메이슨이자 合理主義者였던 Born이 야금을 발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Born은 이를 계기로 하여 작곡가이기도 한 Benjamin Franklin 으로부터 축하를 듣고 아마도 2곡의 프리메이슨가곡²⁸⁾을 헌정받았다”고 Gräffer²⁹⁾가 보고 하였다. Born은 1784년 ‘프리메이슨지’의 제1권에 이집트의 神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이 후에 ‘마적’에서 Sarastro 의 建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주회에서 테너독창은 오페라가수 Valentin Adamberger 가 불렀다. 이러한 종류의 Mozart 의 주요한 작품으로 1785년 11월 10일에 메클린부르크 슈틀리츠에서 육군소장이었던 Georg August 공작 그리고 갈란타의 Franz Esterházy 의 죽음을 계기로 작곡된 ‘메이슨 장송음악’ (die

27. 音樂大事典 (세광출판사(원), 서울, 1983, p.1651)에서 이 곡을 ‘結社員의 여행’이라 번역한 것은 정확하지 못하다. 이는 프리메이슨의 등급체계가 3등급으로 구성되어 ‘Geselle’는 제2등급이기 때문이다.

28. 2곡의 가곡은 ‘Apology pour l’ordre des Francs-Mançons par Mr. N. ... Membre de l’ordres avec deux Chansons composees par le Frère Americain’이다.

29. Gräffer, Kleine Wiener Memoiren, neugedr, München, 1918.

Mauererische Trauermusik, KV 477)³⁰⁾ 이 있다. Mozart의 대다수의 프리메이슨音樂이 관습적인데 비하여 위의 작품은 훌륭한 감명깊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그는 大家樣式(Meisterritual)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는 Leopold(1987.4.4)에게 쓴 편지에서 죽음을 진실된 행복의 열쇠로서 표현하고 그에게 이러한 행복을 베풀어 주신 神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거기서 ‘당신께서 나를 이해하시지요’(Sie verstehen mich)라는 삼입구가父子지간의 프리메이슨리에 대한 비밀을 암시하고 있다. Mozart가 완성한 최후의 작품은 ‘프리메이슨小칸타타’(Eine kleine Freimaurerkantate, KV 623)로서 1791년 11월 15일 작곡되었으며 Mozart의 작품번호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 이 작품은 그해 11월에 ‘新최고의 희망’로지의 寺院의 낙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작곡되었다. 이 곡의 歌詞는 의심스러운 사생활의 변화때문에 레겐스부르크의 ‘3개 열쇠의 칼’(Karl zn den 3 Schlüsseln)로지에서 휴직한 Emanuel Schikaneder가 쓴것이다. 그는 비인에 있는 로지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이 축하칸타타는 ‘Zum Schluß der □’가곡집의 부록으로 실렸으며 원본이 없어서 어쩌면 Mozart가 작곡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원래의 가사는 ‘우리 손을 마주합시다’(Lasst uns mit verschlungenen Händen)인데 세상에서 일찌기 ‘형제들은 손을 서로 맞잡고 있다’(Brüder reicht die Hand zum Bunde)로 바뀌어서 독일 대학생가요집에 수록되었다. 초기에는 이 선율이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國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순수한 프리메이슨 작품에 비하여 단지 프리메이슨 성격을 띠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로지의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사도 프리메이슨의 의식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 ‘천지만물의 영혼, 너에게’는 Mozart가 프리메이슨리에 가입하기전에 1783년 전반기에 작곡된 것으로 보인다. 歌詞가 18세기의 합리주의적인 自然哲學과 상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로지의 목적을 위하여 작곡되었다는 Köchel의 제3판(Einstein)에 나온 견해는 의미가 없다. 이와같은 경우는 칸타타 ‘너희가 천지만물의 창조자를 경배하라’(Die ihr des Weltalls Schöpfer ehrt, KV 619)³¹⁾

30. 관현악을 위한 이 곡은 P. Nettle에 의하면 본문에서 본바와 같이 1785년 11월 10일에 작곡된 것으로 MGG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C. Hill은 GDMM(cf. vol. 11, p. 755)에서 위의 본문에서 언급된 두사람이 죽기 몇개월전 1785년 7월에 이미 작곡이 되고 그후에 연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명의 Mozart가 가입했던 로지의 단원을 기념하는 예배를 위한 작품으로 추측되었으나 ‘The Brief Mauererische Trauermusik KV 477/479a’에 미루어 장송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儀式 ‘大家 취입’을 위하여 작곡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31. 이 곡은 F.H. Ziegenhagen의 “Lehre vom richtigen Verhältnisse zu den Schöpfungswerken (Hamburg, 1792)”에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도 마찬가지이다. Zigenhagen 은 Leopold 가 Wolfgang에게 보낸 편지(1777. 11. 24)에서 수건공장장(Tuchfabrikant)으로 표현되었는데 그는 Schikaneder가 가입하고 있던 레겐스부르크의 '3개의 열쇠'로지의 團員이었다. 그러나 그의 책이 넓은 영역으로 국민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애호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가사가 결코 프리메이슨리의 어느 특정한 思想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人間性에 대한 것이다.

오페라 '마적'에서 프리메이슨리의 3가지 빛인 '지혜, 미, 힘'과 일치하는 '신체력, 미, 지성의 밝음'은 일역을 담당하고 있다. 초기의 사이비 프리메이슨 가곡에는 '오 友情의 신성한 연합이여'(O heiliges Band der Freundschaft)가 있으며 이 곡은 초기(잘츠부르크, 1772)에 작곡되었으므로 프리메이슨 音樂에 속하지 않는다.

순수프리메이슨음악이던 사이비프리메이슨음악이던간에 여기서 언급된 특히, Mozart의 博愛樣式(Humanitätssil)로 볼 수 있는 모든 작품들을 A. Heuss는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열정양식이 불태우는 선율기법'(metaphysischer Wärmestill durchglüht)으로 묘사하였다. 빈번하게 넓은 음정으로 넓게 도약하는 선율의 선과 합창 음악에서 유래하는 칸틸레네, 조용하고 선명하며 두드림이 없는 리듬은 이 樣式的 표시인데 '마적'의 프리메이슨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다. 그밖에 몇개의 Mozart 작품이 조합에서 儀式的인 用度에 쓰였다.

시편 cxxix, De profundis clamavi KV93, O heiliges Band KV 148/125 h, the Marian gradual Sancta Maria KV 273, the Adagio and Fuque in C minor KV 546, Adagio and Rondo in C KV617, the metet Ave verum corpus KV 618.

2) '마적'(Die Zauberflöte)

Mozart의 作品中에서 프리메이슨리의 이미지가 음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는 유명한 '마적'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오페라가 1791년 요셉Ⅱ세가 자코뱅당의 책동때문에 로지들을 금지하거나 또는 강력하게 규제했던 시대에 작곡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Schikaneder는 이 대본을 본래 마술작품으로 생각하고 프리메이슨 사상을 이집트 색채로 꾸며서 나타내어 마술극장 성격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世界改善과 人道主義에 대한 理念과 연관된 秘密崇拜는 지성적인 계층뿐만 아니라 교외영역에서도 선호한 극적인 주제였다. Schikaneder에게 주요 문헌은 Born의 이집트의 神秘에 관한 論文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디오도로스 시쿨루스(Diodorus Siculus)와 플루타르히(Plutarch)에 관계되는 글로서 18세기에 이집트의 신비에 대하여 추구하던 作家들에 의한 것이다. 그밖에 Abbe Terrason의 소설 Sethos가 생각되는데 이는 알려진 바

에 의하면 그리스의 신비를 번역하여 1731년에 無名으로 출판되었으며 1777년 Matthias Claudius 가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그리고 Terrason 의 디오도르(Diodor) 小説은 프랑스학자가 번역한 것과 연관이 있다. 디오도르는 '도서관 역사'(Historie Bibliothek)라는 제목으로 民族史로 출판되어 초판이 이집트에 헌정되었다. 이 소설은 Schikaneder 의 대본의 일반적인 배경인 고대 그리스의 이집트 고고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人道主義의 理想을 형성한다. 특히 비인에서 행해졌던 것같이 이 작품이 프리메이슨리에 사용된 사실은 이 소설의 평범한 배경에 특별한 색채를 띠게 하였다. 디오도르와 플루타르히 이외에 무엇보다도 Apuleius 의 小説 '변천'(Verwandlung)은 이오페라의 가사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의심할나위없이 Born 과 Terrason 이 Apuleiu 를 연구하였다. 비밀결사단 가입의식이나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이러한 작가들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Heliodor 의 소설 '에티오피아 역사'(Athiopische Geschichten)도 '마적'의 문헌으로 빼놓을 수 없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Tamino 와 Pamina 가 결국 어려운 시련을 거쳐서 서로 만나게 되어 사제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한쌍 Theagenes 와 Charikleia 의 복잡한 운명에 대한 것이다.

Tamino 와 Pamina 란 말이 이집트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Schikaneder 는 이 두사람의 이름을 잘못으로 바꾸었다. 본래 Tamino 는 Pamino 이고 Pamina 는 Tamina 로 불러야 한다. Pa-min은 Min에 속하는 男子이고 Ta-min은 Min에 속하는 女人을 의미한다. Min은 이집트 동쪽의 사막의 보호신 Koptos 와 Achmin 의 고대 지역신이다.³²⁾

프리메이슨리의 요소로서 이오페라에서는 '대변자'(Sprecher)를 들수있는데 Terrason 의 소설에서는 '인터로쿠테우스'(Interlocteus)로 등장하며 신비극의 密敎司祭에서 유래한다. Apuleius 에서는 대제사장 Mitras 가 Lucius 를 Isis(이집트의 女神, Osiris 의 妻)의 시종에게 인도한다. 프리메이슨리에게 널리 퍼진 비밀을 전수한다는 뜻의 Neophyt 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교리연구자(Katechumenat)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대변자'(Sprecher)라는 말은 영국회의의 '의장'(Speaker)에서 유래한 말로서 유럽 대륙의 로지에 전래된 것이다. 로지는 대변인(Redner)은 로지에서 프리메이슨 源論을 강연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많은 로지에서 상위계급을 차지하였다.

32. S. Morenz(Die Zauberflöte, Münster, 1952)은 많은 이집트 고고학적인 자료를 이러한 연관으로 발표하였다.

오페라 '마적'의 인물구성을 볼 때, Tamino와 Pamina가 그들의 덕행을 실행하는 강한 의지와 높은 지혜를 기꺼이 구함은 兄弟愛와 잘 부합되며 이는 Sarastro가 인도하는 司祭의 습唱으로 표현된다. Papageno와 Papagena이 한쌍이 겪는 시련은 프리메이슨入門에서 신비로 들어가는 세속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의 상대적인 설정을 한 무대에 가깝게 접근시킨 것으로 보이며 Papageno와 Papagena가 入門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밤의 여왕과 그의 시녀들은 미개한 신분을 나타내며 Monostatos는 어둠을 나타낸다.

숫자 3은 프리메이슨리에서 여러 가지 儀式的 意味를 가지며 '마적'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女人과 3명의 동자 그리고 사제의 18가지 규칙(6×3), 이 세가지 또한 3의 그룹이다. 그리고 숫자 18은 황금십자단의 계급에서는 신비의 숫자이다. 가장 보편적인 예로는 프리메이슨 로지의 3등급의 연합이며 寺院의 3개의 기둥에 대한 표현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리듬의 아이디어로 나타내거나 3중으로 반복되는 和音이 가장 명백한 예가 된다.

'별처럼 불타는女王'(Sternflammende Königin)이란 말은 역시 메이슨의식에서 따온 것으로 '불타는 별'은 앵겔작센이나 유럽대륙의 프리메이슨에서 일역을 하며 '마적'의 조판 가사집의 동판에서 빛나는 별위에 모래시계와 곡자 그리고 국자를 볼 수 있다. 3명의 동자들의 3가지 주문 '침착하고 인내하며 침묵하라'(sei standhaft, duldsam und verschweigen)는 오늘날까지도 '구도자'(Suchenden)의 상징적인 여행에서 徒弟수업에 주어지는 3제명이다. Tamino가 才智와 노동 그리고 예술이 여기에 있다고 응답했을 때 그것은 동양의 로지에서 나오는 '3가지 작은 빛'(3 kleinen Lichter)에 대한 비유로 나타난 것이다. (독일의 로지에서는 3개의 기둥이다): 현명함, 힘,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이다. 남성동맹에 대한 특별한 비유는 사제와 Tamino 사이의 대화에서 나온다(여성동맹을 그들의 비밀로부터 파문시켰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당신을 호렷군요'(Ein Weib hat also dich berückt).

Tamino가 스물두번째 등장하여 '오 영원한 밤이여 언제나 사라지느냐, 언제나 내 눈이 빛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노래할 때, 그것은 다시금 구도자의 상징적인 여행을 의미하며 로지에서는 눈을 가리고 迷路로 인도한다.

무대장치는 이집트풍이며 일부는 Terrason의 묘사를, 일부는 Born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무대의 각 면마다 9개의 피라미트가 있고 중앙에는 위대한 Sarastro가 사원의 북쪽문(로지의 의식에서 처럼)에서 왕자 Tamino가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Sarastro에게 던져진 3가지 질문, '정절을 지키는지, 침묵을 아는지, 덕행을 실천하는지가 나온다. 이 질문은 구도자가 등장하여 사원앞으로 다가갈 때 영접하는 의식의 일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질문하고, 누가 구도자이며, 스스로 총

은 부르심에 기뻐하는지 등등, 사제에 대한 Sarastro의 질문은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구도자에게 예비실에서 주어지는 질문과 나란히 진행되는데, 이는 마치 교단의 판단에 따르는 표적과 같다. 대화장면에서 나오는 질문과 대답은 대부분이 프리메이슨의식에서 어휘를 빌려온 것이다. 대변자는 두명의 사제와 함께 무대 왼쪽면 앞으로 퇴장하는데 이것은 바로 수업받는 大家가 구도자를 인도하는 두명의 감시자와 함께 퇴장하는 의식과 일치한다. 대변자가 31 번째 등장할 때 王子에게 주어진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다: '아직도 후퇴할 시간은 있다'는 경고는 입단의식에서 大家가 구도자에게 그가 자신을 충분히 강하게 느끼지 못할 때 대조물로서 세속생활로 돌아갈 것을 경고하는 것과 같다. 사제와 대변자 사이의 2중창 '너희를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보존하라, 이것이 이 동맹의 첫째 의무이다.' 역시 남성동맹에서 여성의 파문을 암시한다. 여행과 불의 시련 그리고 물의 시련은 이집트 프리메이슨리의 신비에서 전래된 것으로 Mithra와 Isis에 대한 신비에서는 용기의 시험이다. 그밖에 뱀도 프리메이슨리의 잘 알려진 상징의 하나이다.

音樂的 象徵性은 직접적으로 메이슨 儀式과 연관되며 프리메이슨리의 理念도 Mozart의 樂曲에서 찾아볼 수 있다.

Chailley³³⁾는 '마적'의 조성적 구성은 조성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반영되어 프리메이슨리의 세속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E^b 조는 완전히 메이슨조성으로서 3개의 내림표는 3중의 입단식과 박애사원의 3기둥에서 반영되었다; E^b 장조의 관계조 C단조는 메이슨 理想의 불완전한 포용성을, 올림표로된 조, 특히 G장조와 E장조는 대표적인 세속적 관심사를 상징한다. 그리고 C장조는 중성적인 조로서 Chailley의 분석에 의하면 신탁의 진술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구성의 면모는 이 오페라의 첫 장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와같은 논지는 석연치 못한 점을 남기고 있지만 Mozart의 메이슨 音樂의 대부분이 예컨대, 칸타타(KV 429/468 a)와 같이 '메이슨調 E^b 장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상징의 음악적 반영으로는 리듬동기의 사용이다. Mozart가 실현했던 것처럼 프리메이슨리의 이념과 그외의 일반적인 박애정신이 음악양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당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적'에도 서곡의 첫머리에서 E^b으로 올리는 장중한 3차례의 화음의 올림은 徒弟의 리듬(VV -)이나 大家의 리듬(- - -)의 양식화로 이해할 수 있다. Peter von Winter는 그의 오페라 '迷路'(Das Labi-

33. cf., J. Chailley, *La flûte enchantée*, opera maçonnique (Paris, 1968, Eng. trans. 1971).

rinth) 또는 ‘초보자들과의 투쟁’ (Der Kampf mit den Elementen) (마적의 제 2부) 서곡의 첫머리에서 다시 이 리듬을 사용하였다. 오페라의 순수음악적인 악곡에서 또는 로지에서 숫자 3이 일역을 하는 것처럼 徒弟의 리듬도 3번 울린다. 두드림리듬 (Klopfrhythmus) 으로 된 푸가토주제는 흔히 거친 돌을 다듬는 일과 연관되어 나온다. 崇拜音樂으로는 司祭의 進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갑옷을 입은 두사람은 로지의 2명의 감시자와 일치하며 그들이 쓰는 말은 Sethos 소설에서 빌려온 것이고 音樂은 Kimberger의 옛 코랄 ‘아 神이여 하늘로부터 굽어 살피소서’ (Ach Gott Sieh’ dar-ein)에서 연유한다.

‘마적’이 同時代의 사람들, 특히 Goethe에게 강한 인상을 준 사실은 그의 오페라 ‘Torso der Forts’에서 나타난다. 더구나 Goethe는 그의 작품을 프리메이슨 음악가 P. Wranitzky에게 작곡을 의뢰하려 했다. Goethe의 ‘토르조’에서도 또한 프리메이슨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 있는 P. Winter의 ‘미로’와 J. Henneberg (Schikaneder의 대본)의 ‘최악종의 졸작’ (Machwerk schlimmster Sorte)에서는 Mozart 오페라의 등장인물 이외에도 Typhoeus와 Sithos 형상이 나온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Mozart의 프리메이슨 音樂은 ‘마적’에서 집합되었으며 절반프리메이슨 음악 ‘타모스王’ (Konig Thamos)을 그 정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프랑스의 프리메이슨 音樂

영국의 대로지가 설립되자 곧바로 프랑스에도 프리메이슨리가 전파되었는데 이는 이미 기존해 있던 메이슨결사 (Ordre maçonnique)를 생각할 때 당연한 추세이다. 프랑스의 첫번째 로지는 영국인으로 여관주인이었던 Hurc가 1725년 파리에서 ‘Au Louis d’Argent’ 로지를 설립한 것이다. 다른 작가들은 스코트랜드의 로지에서 이주해온 Stuart의 지지자 한 사람이라 하고 또 다른 작가는 아일랜드 군대의 한 장교에 의하여 생제르맹城에서 ‘Des Sept Lumieres’ 군대로지가 그 첫번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여러 해전부터 순수한 프랑스로지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1738년에 Antin 공작이 뤼네빌에서 열린 대규모 프리메이슨 축제 동안에 프랑스로지의 大家로 추대되었다. 그의 후임자로는 Clermont 백작과 Chartres의 공작이 있으며 후자는 Louis-Philippe I세의 아버지이며 Orleans의 공작이 되었다.

초기의 프랑스로지에서는 비교적 音樂行事(연주)가 서로 종류는 다르지만 자주 개최되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儀式的인 歌曲(徒弟의 노래, 匠色の 노래, 감시자의 노래, 大령의 노래 등등)과 兄弟愛에 대한 사랑의 성찬을 위한 '성찬의 가곡(Tafellieder)'이 로지의 축제를 위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례적으로 불려졌다. 또한 로지입단식을 위한 가곡이 몇개 있다. 이와같은 소규모의 작품들은 Heimlichtuerei에 의하여 하나도 고치지 않고 세속적인 가곡과 시와 함께 몇곡씩 신문이나 주간지에 실리거나 드물게는 로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책자로 모아졌다. 이러한 가곡들은 잘 알려진 곡은 '보드빌' 또는 '퐁뇌프'(Pontsneufs)³⁴⁾로 불려졌으며 한편으로는 그들 교유의 선율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Naudot³⁵⁾의 귀중한 독창곡들은 다수가 원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소규모 3성부 남성합창곡도 있다. 이 독창곡집의 부록에는 또한 여러 가지 악기를 위한 행진곡 2곡(특히 관악기)이 수록되었다. 이런 종류의 행진곡은 프리메이슨 儀式은 물론이요 18세기와 19세기에 일반대중들에게도 매우 애호된 것 같다. Naudot의 독창곡집중에서 '프리메이슨의 행진'(La March des Francs-Maçons)는 Corrette가 클라브생곡으로 편곡하였으며 플룻티스트 Blavet는 '메이슨大로지를 위한 행진'(Marche de la Grande Loge de la Maçonnerie) 플룻을 위한 곡으로 편곡하였다.

Blavet는 그가 모시고 있었으며 프랑스大로지의 大家였던 클레르몽백작의 부탁으로 관현악을 위한 곡을 작곡한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Henri-Joseph Taskin이 작곡한 다수의 프리메이슨 행진곡이 있다. 승직임명의 讀會를 자신들이 작곡한 칸타타로 보충하거나 완성시키는 관습이나 유행이 프랑스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선호된 것 같다. 이런 종류로는 아주 아름다운 칸타타 Clerambault(1743, 클레랑보)의 '프리메이슨'(Le Frans-Maçons)와 다소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도 많다.

많은 유명한 音樂家들이(고정적이거나 임시로)혁명전에 프리메이슨리에 가입했었다. Rameau는 일반적으로 프리메이슨 작가들로부터 승진된 團員으로 취급되었다. 그의 오페라의 다수가 프리메이슨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 면이 드러나면 '초로아스트르'(Zoroastre, 1749)에서 볼 수 있다. Gluck, Gossec, Salieri, Dalayrac³⁶⁾, Piccinni, Spontini 등의 音樂家들도 자주 언급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寺院의 儀式을 개최하기 위한 작품이나 진급시험을 위한 수업을 고취시키기 위한 작품이 보존

34. 센강의 다리중의 이름이기도 하다.

35. 아마도 1726년~1745년에 파리에서 살았던 유명한 플룻티스트와 동일인인것 같다.

36. '아홉자매'(neuf soeurs)로지의 고위직을 맡았었다.

된 것이 없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올림픽로지를 위한 음악회’ (Les concerts de la Loge Olympique)가 특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로지는 Gossec가 지휘한 ‘아마추어 음악회’ (Concert des Amateurs, 1780)경연대회가 끝난후에 설립되었는데 이 로지에서는 입단한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일들로 하여 예술가를 보는 사회적인 대우가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샹쓰에 커프스를 한 훌륭한 복장을 하고 옆에는 검을 차고 깃달린 모자를 의자 옆에 놓고 연주하며 관객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발되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로얄궁전에 있는 프리메이슨室에 입주하고 난후 올림픽로지는 1786년 뮈레리궁전에 훌륭한 방을 얻었으며 Marie-Antoinette 女王과 Geblut 왕자가 그당시 자주 음악회에 왔다. 이 음악회는 주로 Viotti가 운영하였다. 이따금씩 이 음악회를 위하여 Cherubini가 작곡한 칸타타 ‘앙피옹’ (Amphion)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이 음악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하였기 때문에 올림픽로지는 많은 우수한 작품을 작곡가들에게 의뢰하여 남겨놓았다. Haydn도 그의 최고의 교향곡 6곡을 이로지에 보내왔다. 그밖에 Foire Saint Germain이 연주한 몇곡의 오페라코믹과 인형극을 위한 풍자적인 악곡이 프리메이슨리 또는 프리메이슨을 위하여 상연되었다. 혁명의 결과 휴식시간을 거친뒤 1796년부터 이로지는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황국시대에 거의 공식적인 기구로 발전하였다. 이 시대의 작품으로는 음악적으로는 보잘것 없는 Henri-Joseph Taskin(1779-1852)의 작품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그의 창조적 재능은 의식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는데 발휘하였으며 그의 양식은 한편으로는 그당시 프랑스에서 ‘이지스의 신비’ (Les mysteres d’ Isis)로 편곡되어 알려졌으며 그중의 몇곡은 의식용음악으로서 프리메이슨 축전에서 연주되기도 한 Mozart의 ‘마적’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소설에서 영향을 받았다. 흥미있는 것은 프리메이슨 생활의 모든 경우에 사용된 입단식을 위한 노래, 칸타타, 장송곡, 행진곡 등을 작곡한 사실이다.

그밖에 19세기에서 여기서 취급한 영역의 작품은 거의 없다. Boieldieu, Pleyel, Meyerbeer 등이 단원이었으며 전해오는 작품은 하나도 없다. 몇명의 당시의 음악가들이 다행히도 프리메이슨 음악의 전통을 활성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실은 프랑스에 그당시 Mozart 연구자가 있다고 한번도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ozart가 작곡하고 프리메이슨가곡이 되었으며, 음악양식이 18세기 중엽의 프랑스의 프리메이슨가곡의 시와 매우 유사한 ‘마일레의 노래’ (Chant des Maillets)를 프랑스에서 철저히 받아들여진 점이다.

5. 기타 다른 작곡가에게 미친 메이슨영향

로지의 大家를 상징하는 3화음동기의 사용은 메이슨의식을 상징하는 경향을 띤 다른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J.G.Naumann의 行列聖歌 (L'entree dans la loge, 40 chants maçonniques, 1782)와 F.A.P.Philidor의 칸타타 '종교카르멘' (Carmen Seculare, 1779)와 같은 작품이다. 후자는 메이슨암시를 표현하기 위하여 임의로 택한 Horace의 가사에 기초한 칸타타이며 대로지에서 초연된 메이슨이상을 고취시키는 18세기의 많은 작품중의 하나이다.

Haydn은 1785년 2월에 프리메이슨이 되었으며 Leopold Mozart와 Wolfgang Mozart가 참석한 가운데 '참된 화합' 로지에서 入團式을 거행하였다. 이는 Mozart의 권유에 그가 응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그보다는 Haydn의 프리메이슨리에 대한 관심이 그의 가까운 친구였으며 Jahann Erterhazy 궁정에서 악장을 지냈던 P. Wranitzky로부터 더 큰 고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Haydn의 프리메이슨자격은 1787년에 소멸되었으며 그는 입단이후 그 어떤 메이슨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메이슨리를 위하여 남긴 작품이 없다.³⁶⁾

Beethoven이 프리메이슨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되나, 실제적인 연관은 밝혀진 바가 없어 그가 프리메이슨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³⁷⁾ Beethoven은 F.G.Wegler(1810.5.2)에서 보낸 한 편지에서 프리메이슨로지에서 불러질 한 가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가곡은 프리메이슨歌詞로 '희생의 노래' (Opferlied, Woo 117)³⁸⁾인데 Wegeler에 의하여 부록에 수록되었다. 많은 Beethoven의 作品이 18세기 후기의 위대한 이상주의적인 博愛主義思想을 나타내는 의미로 작곡되었으며³⁹⁾ 특히 '피델리오' 중에서 많은 선율을 전형적인 박애주의사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 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의 가사는 그시대의 理想과 人類의 兄弟愛를 선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형제가 된다' 이와같은 유토피아적인 꿈은 프리메이슨 崇拜思想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 시대에 지배적이던 감성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주

37. Haydn의 '천지창조' (Schopfung)에서 메이슨 상징성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chailly의 주장도 있다.

38. H. Riemann은 (Riemann Musik Lexikon, W. Gurlitt, B. Schott's Söhne, Mainz, 1959)은 Beethoven이 프리메이슨이 아니었다고 한다.

39. 이 노래의 내용은 한 메이슨의 입단과 메이슨문답에 나오는 가사 '누가 자유인인가?' (Wer ist ein freier Mann?)이다.

40. 이러한 作品으로는 제 9번교향곡, 피델리오, 에그몬트 등등이 있다.

제선율이 프리메이슨 노래집에 수록되어 출판됨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F. Liszt 는 1841 년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단합’ (Zur Einzigkeit) 로지에 입단하였으며 ⁴⁰⁾ 베를린의 ‘화합’ (Zur Eintracht) 로지의 발기인이기도 했으며 제 2 급과 제 3 급을 수여받았다. 특히 관심있는 것은 R. Wagner 와 프리메이슨리와의 관계이다. 그는 이로지와 합치기로 계획하였으나 결국은 실행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그가 ‘파지팔’ (Parsifal) 에서 그의 프리메이슨리에 대한 지식이 약간의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해 준다. Wagner 는 Liszt 에게서 보다 그의 사돈 Oswald Marbach 박사 ⁴¹⁾ 부터 프리메이슨리에 대하여 더 많은 궁정예술의 비밀에 대하여 암시를 받은 것 같다.

音樂學者중에는 Hugo Riemann 이 주목할만한 프리메이슨이였으며 그는 라이프찌히의 ‘뫼닉스’ (Phoenix) 로지에 속했으며 도제강연이나 대가강연을 하였다. ‘왜 음악이 궁정예술의 극치로 평가받는 반려자인가’ 라는 연설이 1897 년 라토미아 (Latomia, 209) 에 수록되었다. 바이로이트시대의 은행가 Friedrich Feustel 은 ‘태양’ (Zur Sonne) 대로지의 團長 (grandmaster) 였으며, ‘침묵의 알로이지우스’ (Aloisius zur Verschwiegenheit) 의 단원이었다. 그는 바그너극장을 건축했을 뿐만아니라 Wagner 에게 의심할 나위없이 프리메이슨리의 사상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리메이슨리의 사상과 용어가 ‘파지팔’ 에서 눈이 뜨이는데 ‘한낮’ (Hochmittag) 이라는 표현과 聖杯장면에서 나오는 응답식성격 등이 이에 속한다.

독일에서 프리메이슨리에 가입했던 음악가에는 Abt, Darmrosch, Lindpainter, Litolf, Löwe, Lortzing, Reissiger, Speyer, Spohr 등이 있다. Löwe 는 1829 년 슈테판에 있는 ‘3 개 콤파스’ 로지에 가입하였으며 이로지를 위하여 여러 곡의 프리메이슨 중주곡을 작곡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頌歌 (Ode) ‘시계’ (Die Uhr) 가 이로지에서 초연되었다. Lortzing 은 1826 년 아헨에 있는 ‘지속과 화합’ (Zur Beständigkeit und Eintracht) 로지에, 1834 년에는 ‘린데의 발두인’ ⁴²⁾ 로지에 입단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찌히의 ‘3 그루 종려나무의 미네르바’ ⁴³⁾ (Minerva zu den 3 Palmen) 로지의 100 주년 (1841) 에 축하칸타타를 작곡하였다. 그밖의 근세 독일의 작곡가로는 Gerhard von Keussler, Alexander Zemlinsky, Theodor Ve-

41. Speyer 를 보증인으로 입단하였다.

42. Wagner 의 자매 Rosalie 의 남편이며 라이프찌히로지 ‘Balduin zur Linde’ 로지에 가입하였으며 메이슨잡지 ‘Am Reissbrett’ 를 발행하였다.

43. 발두인 (Balduin) 은 남자이름으로 ‘용감한 친구’ 라는 뜻을 갖는다.

44. 미네르바 (Minerva) 는 회랍신화에서 지혜와 技藝의 女神이다.

idl 이 프리메이슨이었다.

IV. 結 論

이상 本論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리메이슨리는 石工들의 象徵主義를 통하여 올바른 人生의 德行을 가르치는 道德性에 대한 하나의 寓話이기도 하다. 프리메이슨리는 중세 후기의 순수이념적인 메이슨을 인정하는 관행으로부터 작업하는 메이슨의 로지로 연역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행은 17세기 후반에 널리 퍼지게 되어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널리 전파되었다. 프리메이슨리 信奉者들은 自然, 理性, 智慧라는 3개의 軸에 의하여 솔로몬의 寺院에 대한 지적인 類推로서 '博愛寺院'의 건축작업을 위하여 일했던 것을 일컬어지고 있다. 프리메이슨리의 儀式的이며 象徵의인 語彙가 근본적으로 솔로몬의 우두머리 건축가인 하이람의 형상을 중심으로한 神秘에서 연유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러나 이는 18세기에 발달했던 崇拜思想과 같이 모든 宗教와 전설적인 啓示의 대등한 타당성의 수용과 이집트의 타로트와 중세의 점성술, 그리고 數秘學과 코란, 탈무드(유대인의 율법과 그 해설)서술, 성경 등과 같이 不同等의 공통점이 없는 근원으로부터 정교한 집합적 思想을 구축하는 多數의 諸說混合主義(Syncretism)로 특징지을 수 있다. 18세기에 프리메이슨리는 중산층의 정치적 自由主義와 社會主義를 위한 表現의 한 理想의인 形態로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音樂家나 作曲家들과 함께 Goethe, Lessing, Herder, Klopstock, Beaumarchais, Stendhal, Friedrich der Grosse, George Washington, Benjamin Franklin과 같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團員들이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프리메이슨리를 둘러싸고 있는 비밀때문에 어떤 音樂이 메이슨적인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특별한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 순수기악은 메이슨의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메이슨의지가 포함되어 작곡되었다 할지라도 메이슨의 상징주의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지 않는한 메이슨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학적으로 주제를 가진 음악이 프리메이슨에 의하여 '메이슨적'이라는 평가를 마땅히 받을 만한 作品에 대해서도 메이슨의지가 결합되었음에 불림없는 메이슨적 내용이 들어 있다고 간주하는 일은 더욱 더 문제가 있다. 예컨대, Mozart의 '마적'이 의심할 나위없이 많은 메이슨 상징들을 구체화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프리메이슨에 의하여 '메이슨 음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확실한 메이슨 의지를 판명해 내는 일은 어렵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동아출판사(편),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1982, 제 29 권
- 박영사(편), 정치학대사전, 서울, 1980.
- 세광출판사(편), 音樂大事典, 서울, 1983.
- 송경자, W.A. Mozart 의 오페라 <Die Zauberflöte>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1988.
- 이기문(편), 基督教大百科事典, 제 15 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Chailley, J., La flûte enchantée, opera maçonnique, Paris, 1968, engtrans., 1971.
- Crawley, c.w.(ed),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Vol. VII, X,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65.
- Eggebrecht, H.H.(hrsg.), Riemann Musik Lexikon, Bd.Ⅲ, B. Schott's Söhne, Mainz, 1967.
- Blume, Friedrich(hrsg.),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d.Ⅳ, Bärenreiter-Verlag, Kassel und Basel, 1979.
- Hastings, James(ed.),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T & T, Clark, 1981, Vol.Ⅵ.
- Nettel, P., Mozart und die Königliche Kunst, Berlin, 1932.
- Riemann, Hugo, 'Warum ist die Musik eine so hoch geschätzte Gehilfin der königlichen Kunst?', Catomia, xxvi, 1897, 209.
- Sadie, Stanley(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1980, macmillian publishers limited., Vol.Ⅹ.

Zusammenfassung

Studien über die Freimaurermusik

Cho, Hio-Ihm
(Assistentprofessorin, Seoul
National Teachers College)

Die vorliegende Arbeit stellt eine historische Betrachtung über die Freimaurermusik dar. Der Einleitung vorangestellt ist ein Überblick über die Entwicklung und den Charakter der Freimaurerei.

Eine Reihe bedeutender Musiker war Freimaurer, in England, wo in London 1717 die erste Loge gegründet worden war, Ch. King, Boyce, Arne, S. Wesley, W. Hayes und Th. Attwood, in Frankreich, wo die Freimaurerei von England aus ab 1725 Fuss fasste, u. a. Clérambault, in Österreich, wo das Freimaurertum nach 1740 eine Blüte erlebte, Wranitzky, Kozeluch, G. Benda, J. Haydn und W. A. Mozart. Mozart schrieb an Freimaurerei die Lieder K.V. 468 und 483, 484, die Kantaten K.V. 471 und 623, die Maurerische Musik K.V. 477. Das bedeutendste Werk im humanitären Geist der Freimaurerei ist die Zauberflöte. In Deutschland waren Freimaurer u.a. Löwe, Abt, Lortzing, Reissiger, Spor, Nauman, Liszt auch H. Rieman. Von allem Anfang hat die Musik bei den Freimaurerischen Vereinigungen eine grosse Rolle gespielt, nicht nur bei den internen "Logenarbeiten" (rituellen Zusammenkünften, sondern auch bei den "Weissen Tafeln."

Ich betrachte die Freimaurermusik unter diesen Gesichtspunkten:

1. Die Begriffsbestimmung der Freimauremusik.
2. Die Gattungen und die Verwendung der Freimaurermusik.
3. Die Entwicklung der Frimauremusik in den verschiedenen Ländern u. a. England, Frankreich, Niederland, Deutschland, Österreich und Amerika.
4. Die Freimaurermusik von den bedeutendsten Musikern, die als Freimaurer bekannt waren, u. a. W. A. Mozart, F. Liszt, R. Wagner u. s. w.